

암을 이기는 신비의 천연항생물질

프로폴리스의 기적

- 지난호에 이어서 -

제4장. 프로폴리스에 대한 Q&A

♣ 프로폴리스 제조, 판매업자의 현주소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표면이나 내부에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로얄제리나 벌꿀은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양봉가가 만들고 있지만, 프로폴리스 만을 만드는 업자는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1995년 이후 국내에서도 ‘21세기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생약’으로 불리는 프로폴리스를 추출하는데 성공, 이를 이용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업자에 따라서는 채밀이나 유통문제 등을 고려해서 프로폴리스 원액을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 호주, 중국 등이며, 이러한 나라에서 직접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액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 또는 프로폴리스에 관심을 가진 기업등이 모여서 협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양봉업자와 연구가들이 국내산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에는 여러 가지 효과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세균억제효과를 이용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자의 보존, 묘목의 보존 등 농업?양식업관계, 실내의 공기청정, 건축자재의 소재강화 또는 어류나 생체의 포장재 등입니다. 프로폴리스의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업계는 의약, 화장품, 건강식품, 식품, 공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 서구에서는 의약품인데 우리는 왜 건강식품인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이나 병에 프로폴리스가 유효하게 사용되어져 전문의도 놀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체험에서도 그 약효가 여러 가지로 높다고 소개를 했으며, 또한 국내 연구진과 외국에서의 체험 사례나 의약품으로서 제조, 판매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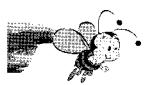
다는 예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용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한방치료법은 2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한방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몇 년에 불과해 역사는 짧지만 체험 사례도 많고 더구나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취급 받고 있는 것이 약으로 인가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는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약은 약효가 있는 반면 부작용이 있어서 그 점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밖에 투여의 양, 방법, 부작용예측, 알레르기성 유무, 안정성조사,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인원, 그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으로서는 무리입니다. 국내 양봉업자들의 자금력, 인재, 설비 등을 생각하면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가 민간약, 민간요법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있는 체험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라 해도 프로폴리스에 의한 체험사례는 확실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 프로폴리스의 등급과 품질의 차이를 판별하는 방법

국내에서 프로폴리스를 출, 상품화하기 전에는 원액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수입회사나 판매회사에 문의하면 산지에 따라 품질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프로폴리스의 성분 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브라질산이며 중국, 호주 산 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 프로폴리스의 생산국



으로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미국, 영국이 있습니다.

원산지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는 생깁니다. 운송비 등의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지에 따라서 프로폴리스 성분의 분석결과나 꿀벌이 채집해 오는 성분도 연구되고 있는데, 국내산을 제외하면 유칼리나무에서 채취한 브라질산 프로폴리스가 품질면에서 좋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어느 나라의 프로폴리스 원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있고, 또 운송 등의 원가비용을 감안해서 볼 때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프로폴리스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효과가 약하다거나 강하다는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폴리스를 마시니까 목구멍이 거칠어진다든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입술에 수포가 생겼다는 호전반응과는 전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판별하는 방법은 프로폴리스 원액의 원산지와 관계가 있는 ‘좋은 프로폴리스의 선택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좋은 프로폴리스의 선택방법

좋은 상품이란 ‘품질을 좋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 이란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①산지표시가 기재되어 있는가 ②용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③제조, 판매업자 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④가격에 매혹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첫째,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입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의 생산국이 어딘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약품도 나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조약품인지 사용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원신지명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 됩니다. 제조회사는 어느 나라의 프로폴리스 성분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회사의 상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브라질산이라 해도 최상품의 제품은 투명하고 찌꺼기가 없으며 향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둘째, 용기의 문제입니다. 어느 생산회사의 얘기로는 프로폴리스 원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으면 성분이 변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데 폐놀수지, 또는 비닐계수지 등은 프로폴리스 성분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기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유리제품에 들어 있는 프로폴리스는 품질이 안전하고 보존하는 데도 좋습니다. 특히 휴대하기 쉬운 유리제품 스프레이 용기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셋째, 제조·판매 회사입니다. 용기나 포장 또는 설명서에는 제조, 판매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명은 있어도 주소와 전화 번호가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사용상의 설명도 불만족스럽고 그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 일어나는 호전반응 등에 대해서 문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상의 품질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끝까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궁금증을 풀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가격입니다. 프로폴리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렴한 대신 용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액의 함량에 따라 그 값이 틀려집니다. 용량과 원액의 함량은 프로폴리스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값이 싸다고 선택할 것은 못되며 실제로 구입하기 전에 여러 회사 제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프로폴리스를 사용 못하는 증상은 없는가

프로폴리스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의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병에 복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사용해서 이전보다 병상이나 병이 악화되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복용하거나 피부에 발라서 나쁘게 되었다는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또 수많은 병 모두가 치료되었던 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 등 여러 가지 작용이 각종 증상이나 병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많은 환자에게 권한 예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 어떠한 병

에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병원이나 연구실 등의 증상보고나 성분분석 결과 등을 보면 확실히 식용으로 써 빵이나 과일 등에 벌꿀을 발라먹어도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고 그 결과 체력, 질병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벌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품이 프로폴리스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체질이나 증상변화를 살피고, 프로폴리스 양을 증감하면서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효과적인 사용법과 적정 양은 있는가

본문 중에 체험사례로써 사용법이나 분량문제를 취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화분증이 치유된 예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과 양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4방울, 1일 3회 복용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만 개개인의 체질이나 상태(열이 높고 낮음, 위가 좋은 사람, 피부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사용방법이고, 어느 증상이나 병에 적량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만 프로폴리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방약에서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생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양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은 한 방울의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프로폴리스 액의 효과적인 사용법으로는 벌꿀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빵이나 과일에 발라서 먹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마실 때는 빈 컵에 프로폴리스 원액 1~2방울을 떨어뜨려서 미지근한 물에 섞으면 뿌옇게 엷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수면에 엷은 막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밖에 우유에 넣어도 좋고 벌꿀이나 로얄제리와 섞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스와 혼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프로폴리스를 음미하게 되면 원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음용법이며, 프로폴리스 자체의 여러 가지 효능들이 혼합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 상태로 우리 몸 속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적정량은 스스로 마셔보고 호전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양을 줄인다든지 1주에서 열흘정도 계속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양을 증가해 가며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방울이면 5방울로 증가하고 다시 1주간쯤 계속해 보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외국의 한 임상사례를 보면 암투병 시 투여량은 1회 80방울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 경중에 따라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는 프로폴리스를 선택한 본인의 의지이며,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좋다는 방법을 다 실천해보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프로폴리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다량 투여를 권하고, 또 가능하면 공복에 먹어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임상사례를 밝힌 잡지가 있습니다.

♣ 마시는 기간과 그 횟수는

이것도 그 사람의 증상이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증상이라 해도 인플루엔자와 일반 감기와는 그 잠복기간, 발병원인, 증상, 열이 생기는 방법 등이 다른 것입니다.

병원체도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후두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일반 감기는 인플루엔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폴리스에 항균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마셔도 프로폴리스로 일반 감기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감기가 나았다고 한다면 프로폴리스를 마시면 식욕이 생겨 증상이 개선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시는 기간은 한마디로 나을 때까지 혹은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시는 횟수도 그 기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횟수는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의 2회, 또는 낮에까지 마신다면 1일 3회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써의 사용은 인정되고 있기에 흔히 복용이라기보다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용이라면 약이란 뜻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사 또는 약사 등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게 되므로 생산회사의 설명서에도 복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 다음호에 계속 -